푸틴 딸 남자친구 윤씨 신분노출에 직장 사표

러 삼성전자 … 테러 표적 우려 경호 강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인 예카테리나 푸티나의 한국인 남자친구로 알려진 윤모(26)씨가 지난달부터 근무해 오던 모스크바 삼성전자 현지 법인을 최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일보 10월 30일자 3면 참조〉

이 회사 관계자는 "한국 언론 보도와 이를 인용한 러시아 현지 언론 보도로 인해 윤씨가 푸틴 총리 딸과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인은 물론 러시아 직원들까지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데다 신분 노출에 따른 신변상의 안전 우려도 커져 윤씨 스스로 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삼성전자 모스크바 현지 법인에 입사해 수습 사원으로 일해 왔다.

회사 관계자는 또 "러시아는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남부 체첸 반군들이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각지에서 수시로 테러를 저지르고 인질극을 벌이는 등 여전히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라며 "윤씨와 푸틴 딸의 교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 모두 테러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평소에도 위험 지역 외출 시 러시아 경호원이 동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대 말 모스크바의 국제학교인 앙글로아메리칸 스쿨에 다니던 윤 씨와 예카테리나는 이 학교 페스티벌을 계기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티벌에서 뛰어난 춤솜씨를 뽐낸 윤 씨에게 예카테리나가 먼저 다가와 친구로 지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윤씨는 올해 초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윤씨와 예카테리나의 결혼 임박설은 최근 국내 언론보도로 알려졌으며 윤씨와 윤씨 가족들은 물론 푸틴 총리 공보실도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윤씨의 아버지인 윤종구(63) 전 해군제독은 광주에서 수창초등학교와 광주서중일고를 졸업한 뒤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광주토박이로, 윤씨와 예카테리나의 결혼설이 보도되자 푸틴 딸이 '광주 며느리'가 될 것인지에 지역 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연합뉴스·윤현석기자 chadol@

어등산개발, 모아건설도 손뗀다

삼능·금광 이어 사업 불참 선언 … 당분간 광주관광개발이 공사 진행

금광기업에 이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나서기로 한 (주)모아종합건설이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어등산 개발 사업자인 (주)광주관광개발은 지난 1일 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공사를 재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4일 "모아종합건설이 금광기업의 어등산리조트 주식을 인수하는데 주주 간 역할 분담 등을 조건부로 승인했으나 그 이행 여부를 마감일인 3일까지 밝히지 않아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아종합건설은 애초 금광기업과 광주관광개발이 구성한 어등산 리조트 법인의 주식 100%와 권한, 책무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고 우선 금광기업의 지분 32%를 인수하기 위해 계약금 100억원과 중도금 50억원을 금광기업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성 검토 결과 대규모 자금 투입에 비해 수익이 낮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사업 불참을 결정했다는 것이 금광기업과 광주도시공사의 설명이다.

금광기업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아종합건설에서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계약해제를 요청했고 최근 이를 수용하겠다는 답신을 보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아종합건설이 인수한 지분 32%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의 68% 지분을 갖고 있는 광주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추가 사업자 선정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실제로 불발탄과 시공업체 자금난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공사는 지난 1일부터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광주관광개발에서 대형 장비 10여대와 인력 20여명을 본격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광주관광개발이 2015년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한 공정률만 따라온다면 굳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 개발부지 163만2000㎡ 중 95% 이상 진척을 보이는 불발탄 제거작업이 이달 말 완료되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첫 삽을 뜬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삼능건설에서 금광기업, 모아종합건설에 이어 다시 광주관광개발로 바뀌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어등산 일대 273만㎡ 부지에 호텔과 콘도, 골프장 건립 등에 3400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일자리 구하기' 수백명 북적 4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0 전남도 일자리 취업·창업 박람회'에 참가한 수백명의 구직자들이 기업부스를 돌며 일자리를 찾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총리 '소통론'에 본보 칼럼 소개

법원장 재직시 기고했던 '판사가 말하는 법…'

김황식 총리의 '소통론'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4년 김 총리가 광주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광주일보의 '판사가 말하고 싶은 법과 사회'라는 칼럼을 통해 누차 강조했던 국민(시민)과의 '소통'을 국무총리가 된 뒤 6년 만에 또다시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4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2010 대한민국 왜 소통인가'를 주제로 열린 SBS 주최 제8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에서 축사를 통해 "소통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라며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G 20 정상회의 개최로 우리나라가 당당한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전기를 맞이했지만, 반드시 풀어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라며 "우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04년 광주지법원장 시절 '판사가 말하고 싶은 법과 시민사회'라는 광주일보의 칼럼을 통해 법원과 시민의 거리를 좁히고자 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김 총리는 당시 칼럼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 불신은 국민의 오해나 과장·왜곡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이해시키고 협력을 구하는 것도 법원의 몫"이라며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도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경쟁해서 국민의 점수를 따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법원과 국민의 소통을 강조했었다.

광주일보의 '판사가 말하고 싶은 법과 시민사회'는 지난 2004년 8월16일부터 2005년 2월7일까지 김 총리를 비롯한 광주지방법원 판사들이 22차례 칼럼을 기재하면서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 큰 역할을 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한전 자회사·전남대 양해각서 체결

印尼 등 해외 바이오에너지 개발 추진

전남도가 한전 자회사, 전남대와 함께 해외 바이오에너지 개발 사업에 나선다.

전남도는 4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영한 한전산업개발㈜ 사장, 김윤수 전남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그린 바이오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사아 등에서 목재와 관련된 펠릿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및 전남도내에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벌목 후 방치된 산림에 경제림 조성 등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와 러시아 연해주의 목재 펠릿 제조 등 산림개발 사업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한전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전남대는 해외산림자원 및 바이오매스 산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학교 내에 바이오매스산업화 기술센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박준영(가운데) 전남지사와 김윤수(왼쪽) 전남대 총장, 김영한 한전산업개발㈜ 사장은 4일 전남도청에서 '그린 바이오사업 공동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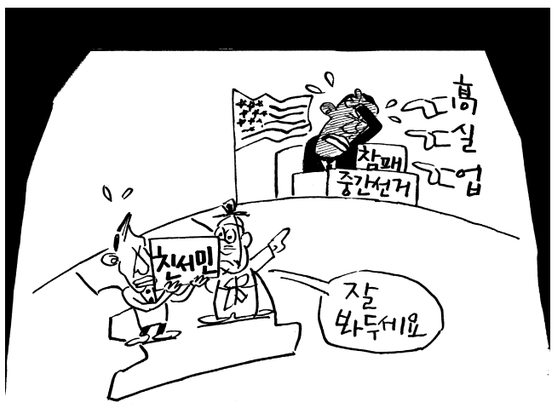
이번 협약체결로 해외 자원개발을 활성화하고 목재 펠릿 등의 생산공장을 전남에 건설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격이 저렴하고 연소효율이 높은 팜 연료 및 톱밥을 농가에 보급해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주와 자원개발 협력을 위해 체결한 상호우호교류 및 자원개발 양해각서 후속조치로 전력분야 공기업인 한전산업개발과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공급이 부족한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해외에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民心 잃으면 어찌 되는지를…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여수시 문수동 세종캐슬하임아파트 관리규약 제43조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세종캐슬하임아파트
   2)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문수동 640-1번지
   3) 단지규모 : 10층 4개동 (180세대)
2. 참가자격
   1) 전남 소재 주택관리업 면허등록업체
   2) 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 등록 3년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0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 소송 진행 사실이 없는 성실한 관리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지명원 등) 1부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1억원이상) 1부 (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능)
   5) 위탁관리수수료 및 직원 인건비 견적서 밀봉제출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자격증 사본 첨부)
   7) 본 입찰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1부(대표 인감, 날인 필)
   8) 행정처분 사실증명서(관할 행정관청 발행) 1부
   9) 현재 관리실적 확인서(관할 행정관청 발생) 1부
   10) 2009년 재무재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1부
4.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1) 제출기한 : 2010년 11월 10일부터 2010년 11월 11일 17:00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장소 : 문수동 세종캐슬하임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 또는 우편접수)
5. 업체선정 방법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선정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낙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61)655-0655)

2010년 11월 5일

캐슬하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HUMAN PLAZA 상가 분양

광주 진월지구 중심상업용지내의 최고 상권에 위치한 마지막상가를 입찰 방식으로 분양합니다.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863번지
대지면적	731.60㎡
규 모	지상 2층 / 연면적 858.92㎡
용 도	근린생활시설
입찰신청	2010년 11월 05일(금) 10:00 ~11월 08일(월) 17:00
개 찰	2010년 11월 08일(월) 17:30
낙찰자계약	2010년 11월 09일(화) 10:00~17:00

현장 확인 및 세부사항 안내는 현장 분양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062) 651-0666 【 H.P 010-8429-9000 】

• 시행 : (주)화인빌 • 시공 : (주)송아종합건설
• 관리은행 : 남광주신협 노대지점

학교법인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기념 남부대학교

강영우 박사 초청강의 | 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는 모법인인 학교법인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미국 백악관 국가 장애위원회 정착보좌관을역임한 강영우 박사를 초청,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라는 주제하에 특별 강연회를 갖습니다. 강영우 박사의 이번특강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의 명성뒤에는 괭이처럼 박힌 아픔을 불굴의 의지로, 후천적 시각장애를 극복한 인간승리의 롤모델이기에 국향 그윽한 만추를 적셔줄 강연이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강연은 광주일보사의 따뜻한 후원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많은 청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0년 11월 8일(월) 14:00 ◦문 의 남부대학교 ☎062)970-0031~2
◦장 소 남부대학교 협동관 대강당 ◦홈페이지 www.nambu.ac.kr

【경 력】

1995~현재	UN세계장애위원회부의장
1996~현재	루즈벨트재단고문
1995~2007	미전국장애법인이사
2001~2009	백악관국가장애위원회정책차관보(미4성장군에해당하는 SeniorExecutiveServiceLevel4)
1977~1993	노스이스턴일리노이대학특임교수

【공적및수상】

2008	미 피츠버그대학교 총동문회 2008년도 올해의 동문상(2008 UniversityofPittsburghDistinguishedAlumniFellowAward)
2007	연세대학교동문회,자랑스런연세인상
2006	루즈벨트대통령재단선정세계를움직이는위인127명중1인으로선정 http://rooseveltinstitute.org/projects/commemorative-chairs/young-woo-kang(127commemorativechairsinHydePark,NewYork)
2004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카운티 2006년도 인권상 수상(Annual Human Right AwardfromFairfaxCounty,Virginia)
2004	미시간 주립대학 한국학 연구회 세계적 한국대상 (Global Korea Award)
2003	연세대학교명예문학박사
2002	아시아계미국인총연맹(AsianAmericanAlliance)공로상
2001~현재	세계저명인사인명사전(Who'sWhointheWorld)수록
2000	"우리가오르지못할산은없다"기독교출판문화협회,저자분야대상
1997	자랑스런재외동포상
1987	폴헤리스휄로우상(PaulHarrisFellow)

【저 서】

2009	오늘의도전은,내일의영광
2007	지혜가이끄는삶:성공적인삶을위한7가지방법
2006	꿈이있으면미래가있다.
2003	내안의성공을찾아라.
2000	우리가오르지못할산은없다.일본어와중국어로번역출간.
1998	아버지와아들의꿈
1995	교육을통한성공의비결
1987	빛은내가슴에,6개국어출간및미국회도서관녹음도서제작외다수

【학 력】

연세대학교	
1972	교육학전공문학학사,문과대학차석졸업
피츠버그대학,피츠버그펜실베니아	
1976	교육학전공철학박사

주최 남부대학교 후원 광주일보사